

## 2016 직지코리아 '전시 도록' 대영도서관 소장

(청주=뉴스1) 김용언 기자 | 2017-03-02 17:11 송고



헤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가 소장된 직지코리아페스티벌 전시 도록을 들고 있다. 사진=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 News1

지난 해 충북 청주에서 열린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소장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기획전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돼 있다.

페스티벌의 수석 큐레이터였던 김승민씨가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와 면담해 소장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장에게도 도록이 전달됐다.

김승민 큐레이터는 "박물관이 도록에 소개된 직지 파빌리온과 직지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호일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은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던 주제전시 도록이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문화 외교적으로 직지의 세계화 부분에서 큰 쾌거"라고 말했다.